

# 공간 표시 조사의 역사적 변화

이 민\*

## I. 서론

본고에서는 15세기~18세기의 자료를 검토하여 한국어 공간 표시 조사들의 역할 분담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공간 표시 조사에는 아래와 같은 형태들이 있다(이규호 2006).

- (1) 단독형: ‘-에’, ‘-의’, ‘-로’, ‘-서’, ‘-브터’  
복합형: ‘-에서’, ‘-의서’, ‘-에브터’, ‘-서브터’, ‘-로서’, ‘-로브터’, ‘-로조차’, ‘-브터서’, ‘-에서조차’, ‘-로서브터’, ‘-로서조차’

본고에서는 ‘-에’, ‘-의’, ‘-로’, ‘-에서’, ‘-의서’, ‘-로서’에 한해 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처소격 조사 ‘-의’는 ‘-에’에, ‘-의서’는 ‘-에서’에 포함하여 다뤘다.

공간 표시 개념은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박진호 2013).

- (2) 정적 위치: 개체 위치, 내부 위치, 측면 위치, 접촉 위치, 상위 위치, 하위 위치  
위치 이동: 출발점-출발점 방향-경유점-도착점 방향-도착점

영어는 여러 가지 정적 위치를 구별해주는 전치사가 있지만, 한국어에는 내부 위치, 측면 위치, 접촉 위치, 상위 위치, 하위 위치를 표시하는 조사가

---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따로 없으므로 이를 분류에서 빼고 검토하기로 한다.

- (3) 가. 즉재 袈裟를 등바기에 이어 ㄴ술 조차 든더니(即取袈裟戴著頂上) 〈月釋 25:30a〉

‘즉시 가사를 정수리에 이고 가장자리를 따라 도망가니’

- 나. 雪山 白玉堀에 舍利弗이 앉고 五百 沙彌 七寶堀에 안즈니 舍利弗 金色身 이 金色 放光하고 法을 닦아 沙彌를 들이니 〈月釋7:21a〉

‘설산 백옥굴에 사리불이 앉고 ...’

- 다. 이 불 오나다 ㅼㄹㅼ매 걸라(這的燈來了, 壁上掛着) 〈飜老上25a〉

‘여기 등불이 왔습니다. 벽에 걸어라.’

(3가)는 [상위 위치로 볼 수도 있고 [접촉 위치로 볼 수도 있다. 저본을 보면 [상위 위치]에 가까운 듯하다. 하지만 이는 명사 ‘정수리’에 의한 것이다. (3나)는 [내부 위치로, (3다)는 [접촉 위치로 볼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앞의 명사에 의한 의미이다. 또한 이들은 조사를 달리하여 표시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명사 의미의 영향을 받은 [상위 위치], [내부 위치], [접촉 위치]를 모두 [개체 위치]로 보기로 한다.

한편 한국어의 ‘-에’와 ‘-에서’의 큰 차이점은 (4)와 같이 ‘-에’는 개체 위치를 나타내고 ‘-에서’는 [사건 위치]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 (4) 가. 철수가 운동장(에/\*에서) 있다.

- 나. 철수가 운동장(에/\*에서) 축구하고 있다.

[사건 위치]를 나타내는지 여부는 뒤에 오는 동사의 영향을 받는다. 즉 (4가)에서 ‘있다’는 정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지만 (4나)에서는 ‘축구를 하고 있다’는 행위(사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선택이 달라진다. 또한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이상 나타날 경우 ‘-에’나 ‘-에서’는 가까운 동사의 공간적 개념을 표시해준다.

- (5) 가. 철수는 운동장에 갔다.

- 나. 철수는 운동장에서 운동한다.

- 다. 철수는 운동장에 간 운동한다.

(5다)에서는 동사 ‘가다’와 ‘운동하다’가 있는데, 공간 개념 표시는 ‘운동장’과 가까이 있는 ‘가다’와 결합해야 하는 조사 ‘-에’를 썼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현대 한국어의 공간 표시 개념 체계를 아래와 같이 세울 수 있다.

〈표 1〉 현대 한국어의 공간 표시 체계

공간 개념		실현 형태
정적 위치	개체 위치	-에
	사건 위치	-에서
위치 이동	출발점	-에서
	출발점 방향	-에서
	경유점	-로
	도착점 방향	-로
	도착점	-에

중세한국어의 공간 표시 체계의 틀은 현대한국어와 같고 그 역할 분담만 다르기 때문에 중세한국어에서도 이런 틀을 적용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검토한 자료 및 약호는 아래와 같다. 해당 시기에 쓰일 법한 용법인데 검토한 자료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 다른 문헌의 예를 가져왔다.

시기	자료명	발행 연도	약호
15세기	월인석보	1459	〈月釋〉
16세기	속삼강행실도	1514	〈續三初〉
	속삼강행실도 중간본	1581	〈續三重〉
	번역노걸대	1517	〈飢老〉
	번역소학	1518	〈飢小〉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1563	〈은중〉
17세기	노걸대언해	1670	〈老乞〉
	태산집요	1608	〈胎産〉
18세기	오륜행실도	1797	〈五倫〉

## II. 본론

### 1. 15세기

#### 1) ‘-에’

중세한국어 시기 공간 개념을 표시하는 조사로 가장 많이 쓰인 것이 바로 ‘-에’이다. ‘-에’는 ‘-애/에, -예, -이/의’로 실현된다. 앞 체언의 끝모음이 양성모임일 때 ‘-애’, 음성모임일 때는 ‘-예’, ‘이[i]/의[y]’일 때는 ‘-예’로 실현된다. ‘-이/의’는 특이 처소 부사격조사로 불리우는데 주로 신체지칭 체언, 방위지칭 체언, 천문지칭 체언, 식물지칭 체언 뒤에 붙는 경향이 있다. 편의상 이들을 모두 ‘-에’로 지칭하기로 한다.

15세기 ‘-에’는 [개체 위치], [사건 위치], [출발점], [경유점], [도착점 방향], [도착점]에 두루 쓸 수 있었다. 유독 [출발점 방향]에 쓰이는 ‘-에’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는 이 시기 [출발점 방향]에 ‘-에서’와 ‘-로써’ 두 조사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에’까지 이 영역을 분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쓰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sup>1)</sup> 필자가 검토한 자료에 이러한 쓰임이 보이지 않았거나 필자가 이런 쓰임을 놓쳐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아래 ‘-에’의 구체적 쓰임을 살펴보기로 한다.

#### - [개체 위치]

- (6) 가. 이 大士ㅣ 목숨 도라보다 아니흐샤물 보고 모다 다 느려와 虛空에 ㄱ득  
 ㅎ야 이셔(見此大士不顧軀命 僉然俱下側塞虛空) 〈月釋7:54-3a〉  
 나. 못 미퓌 고른 金 물애로 싸흘 질오(池底純以金沙布地) 〈月釋7:64a〉  
 다. 坐具ㅣ袈裟 아래 잇게 ㅎ엿터시니(坐具在袈裟下) 〈月釋25:27b〉

1) 하지만 [출발점 개념 표시]에는 ‘-에’, ‘-에서’, ‘-로써’ 세 조사가 쓰였음을 고려할 때, [출발점 방향]에 ‘-에’가 역할 중복으로 쓰이지 않았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 - [사전 위치]

- (7) 가. 상네 諸佛스 조코 微妙흔 國土에 노니리니(常遊諸佛淨妙國土) 〈月釋8:41b〉  
 나. 諸佛의 三昧들 흘 닷가 흔 小劫 다내면 無生忍을 得흔야 現흔 알핀 授記  
 하시리니 (於諸佛所修諸三昧 經一小劫得無生法忍現前受記) 〈月釋8:52b〉  
 다. 비두의 ㄱ름 흔신 ㅅ해 노니거시닐 龍이 다 졸즈바 ㅎ니더니 부테 나라  
 해 도라 오려커시닐 〈月釋7:54-3b〉

## - [출발점]

- (8) 가. 이제 와 쯔 生死受苦에 ㅅ해내와라(今亦拔其生死之苦) 〈月釋7:19a〉  
 나. 이 袈裟少分을 보면 三乘 中에 브르디 아니호몰 得호미오(其人若得見此袈  
 裟少分 卽得不退於三乘中) 〈月釋25:29a〉  
 다. 賢愚經에 닐오디 袈裟 니븐 사르 ㄷ 반드기 生死에 ㅅ리 解脫을 得ㅎ리라  
 〈月釋25:14b〉

## - [경유점]

- (9) 가. 우희 鈎紐를 브티고 衣角을 윈닐해 슝므차 결 아래 두어 드리디 아니케  
 ㅎ라 ㅎ시니라 〈月釋25:27b〉  
 나. 蓮스 고지 黃金臺오 우희 金盖러니 五百 比丘를 迦旃延이 ㄷ리니 臺上에  
 모다 안자 몸에 ㄴ이 나디 花間에 흘러 ㅅ히 아니 저즈니 〈月釋7:21b〉

## - [도착점 방향]

- (10) 가. 부텃 光明이 十方에 비취시며 壽命이 그슴 업스시니 〈月釋7:56b〉  
 나. 즉자히 세 사름 ㄷ리샤 神足으로 虛空에 ㄴ라오르샤 迦毗羅國에 ㄴ득 現  
 ㅎ샤 ㄱ장 放光ㅎ시니(卽以神足猶如雁王 踰身虛空忽然而現 在維羅衛放大  
 光明) 〈月釋10:6a〉

## - [도착점]

- (11) 가. 즉자히 極樂國土에 가아 나리니(卽得往生阿彌陀佛極樂國土) 〈月釋7:71b〉  
 나. 하늬 목수미 다오면 이 地獄에 들릴씩 ㅄ를 글혀 기드리느니라(天壽命終  
 墮此地獄 是故我今欸獲而待難陀) 〈月釋7:13b〉  
 다. 부테 더브러 精舍에 도라오샤 무르샤디(佛見難陀將還精舍) 〈月釋7:10a〉

## 2) ‘-에서’

15세기 ‘-에서’는 [사건 위치], [출발점], [출발점 방향] 등 공간 개념을 나타낼 수 있다. 현대한국어에서는 [사건 위치]를 전적으로 ‘-에서’가 쓰고 있지만, 중세한국어 시기까지는 ‘-에’가 ‘-에서’보다 더 많이 쓰였다.

## - [사건 위치]

- (12) 가. 玉女들히 虛空에서 온 가짓 풍류 흥며 〈月釋2:32a〉  
 나. 院內에서 道行雜作흥 젓 오시라 〈月釋25:18a〉  
 다. 蓮華스 소배서 여섯 劫을 다내오(經於六劫蓮花乃數當華數時) 〈月釋8:73b〉

## - [출발점]

- (13) 가. 王이 平床에서 떠러디샤 오래 츠림 묻혔다가 〈月釋25:11b〉  
 나. 알픈 緣에서 병으로미 |緣은 옷 변지랴 네 가라개 鉤를 브디고 〈月釋25:26a〉  
 다. 座에서 니르샤 올흔 엇게 메밧고 올흔 무릎 꾸러(即從座起偏袒一肩右膝著地) 〈月釋9:49b〉

‘-에’도 [출발점]을 나타낸다.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해야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있지만, 본고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에’는 (8)의 쓰임처럼 추상적인 장소의 [출발점]을 나타내고, ‘-에서’는 (13)과 같이 구체적인 장소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뒤에서 살펴보게 될 ‘-로서’도 [출발점]을 나타내지만 이들과 ‘-로서’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 - [출발점 방향]

- (14) 가. 또 흥 龍을 지스니 머리 열히러니 虛空에서 비 오디 고른 種種 보빅 듣고 올에 번게 흥니 〈釋詳6:32a〉  
 나. 虛空에서 구름 업슨 피 비오며 天地 ㄹ장 위오 힘 光이 업더랴(於虛空中無雲雨血 天地大動 日無精光) 〈月釋20:37a〉  
 다. 四方에서 各各 二百 尊 應眞이 神足으로 느라와(於是四方各二百五十應眞神足飛來稽首佛足) 〈月釋23:60〉

## 3) ‘로’

15세기에 ‘로’는 [출발점 방향], [경유점], [도착점 방향]을 나타낸다. 본고에서 검토한 자료에서는 [출발점 방향]의 예문이 보이지 않았지만 《두시언해》(1481년)에는 [출발점 방향으로] 사용된 예문이 있다. 해당 예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 - [출발점 방향]

- (15) 나뭇니피 누르러 들고 龍이 正히 蟄藏<sub>헛</sub>엿거늘 모던 빅야미 東으로 와 물 우희 노뭇다(木葉黃落龍正蟄 虺蛇東來水上遊) 〈두시언해25:29a〉

## - [경유점]

- (16) 가. 세 불 戒壇을 값도르샤 南面 西階로 戒壇에 오르샤(三匝繞戒壇 從南面西階升于戒壇上) 〈月釋25:39a〉  
 나. 내 門 여디 아니호리나 無學을 得<sub>헛</sub>야든 네 門스 첫 굼그로 오라 阿難이 즉재 첫 굼그로 드려 大迦葉의 懺悔<sub>헛</sub>고(我不與開門 汝從門鑰孔中來 阿難卽從鑰孔中入懺悔) 〈月釋25:9a〉

## - [도착점 방향]

- (17) 가. 眉間<sub>엿</sub> 白毫 | 올흔녀그로 도라 다숫 須彌山 ㄱ<sub>헛</sub>시고(眉間白毫右旋宛轉如五須彌山) 〈月釋8:26b〉  
 나. 일로<sub>엿</sub> 西方으로 十萬億 부텃 샤홀 다나가 世界 이쇼디(從是西方過十萬億佛土 有世界名曰極樂) 〈月釋7:62b〉  
 다. 世尊이 니르샤디 父王이 淸淨<sub>헛</sub> 사르미실썩 淨居天으로 가시니라(父王淸淨飯 是淸淨人生淨居天) 〈月釋10:15a〉

(17가), (17나)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지점이 아닌 체언과 결합하여 ‘로’가 [도착점 방향]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은 문제 없으나 (17다)와 같은 경우 ‘淨居天’에 결합하고 있어 [도착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도착점 방향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망설여진다. 하지만 《월인석보》에서는 [도착점]을 ‘-에’로만 쓴 것 같다.

- (17) 세 불 戒壇을 값도르샤 南面 西階로 戒壇에 오르샤 西面을 從하야 北녀그로  
 도르샤 北面에 가 서샤 世尊이 衣塔을 더디샤 空中에 올리시니 衣塔이 放光  
 하야 百億國土를 차 비취니(三匝繞戒壇 從南面西階升于戒壇上 從西面北轉至  
 于北面上立 衣塔放光遍照百億國土) 〈月釋25:39a-b〉

(18)은 “(부처님이) 세 번 계단을 감도시고 남쪽을 향한 서쪽 계단으로  
 계단에 오르시어 서쪽을 따라 북쪽으로 도시어 북쪽에 가 서서 세존이 의탑  
 을 던지시어 공중에 올리시니 의탑이 빛을 발하여 백억 국토를 가득 비추  
 니”로 해석될 수 있다. 보다시과 한 문장에서 [경유점](-로), [도착점 방향  
 (-로) 및 [도착점](-에)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체적인 지명과  
 결합한 ‘-로’를 [도착점]이 아닌 [도착점 방향으로 처리하였다.

#### 4) ‘-로서’

‘-로서’는 [출발점], [출발점 방향]을 나타낼 수 있다.

##### - [출발점]

- (19) 가. 그제 더 龍王이 坐로서 니러(時彼龍王從坐而起) 〈月釋10:67b〉  
 나. 그 𩵵 부테 神足 가드시고 堀로서 나샤 比丘들 드리샤 아랫 뉘에 菩薩  
 드와야 겨실 제(爾時世尊 還攝神足從石窟出 與諸比丘遊履) 〈月釋7:54-1b〉  
 다. 眷屬 百千龍이 모스로서 나아 禮數하 습더니(龍王眷屬百千諸龍 從池而出爲  
 佛作禮) 〈月釋7:47a〉

앞서 본 (18)에서 [도착점]과 [도착점 방향]의 ‘-에’와 ‘-로’를 구분해서 쓴  
 것과 달리 (20)에서는 ‘-에서’와 ‘-로서’를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다.

- (20) 絲綿이 다 거지비 이베서 나디비 누웨 이베서 난 거시 아니니 衆生 命을 殺  
 害 아니흔 다시며 福業의 感흔 다스로 거지비 이브로서 나느니 실 어더 옷  
 짓고져 흥 저기어든 모로매 然香하고 쏙나모 아래 가면 곧 두 化女子ㅣ 나모  
 아래 나 八歲女ㅣ 곤하리니 이베서 시를 내어든 더 나랏 사름들히 오직 羅  
 車를 밍그라(月釋25:44a)

(20)은 “실과 솜이 다 여자의 이에서 난 것이지 누에 이에서 난 것이 아



나니, 중생의 목숨을 살해하지 않은 것이며, 복업이 감동한 이유로 여자의 입에서 나니, 실 언어 옷을 짓고자 할 때면 모름지기 향을 피우고 뽕나무 아래 가면 곧 화녀가 나무 아래 나서 8세 여자와 같을 것이니, 입에서 실을 내면 저 나라의 사람들이 오직 쇠거를 만들어…”로 해석될 수 있다. 모두 ‘입에서’인 것이, 같은 문헌의 한 문장에 ‘이베서(입에서)’, ‘이브로서(입으로 서)’가 함께 쓰였다. 위치 이동의 표현에서 ‘-에서’와 ‘-로서’는 모두 [출발점], [출발점 방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의미가 비슷한 ‘-에서’와 ‘-로서’에 ‘전염(contagion)’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 [출발점 방향]

- (21) 가. 그저고 大稱王이 맞그로서 드러 술북 사디(時大稱王從外入宮) 〈月釋10:8a〉  
 나. 그픽 釋迦牟尼佛이 十方으로서 오신 分身佛들 홀 各各 本土에 도라가쇼서  
 흥야(月釋18:19b)  
 다. 여덟 가짓 淸風이 [淸風은 맑고 갓갓흔 빛르미래 光明으로서 나아(八種  
 淸風從光明出) 〈月釋8:8a〉

#### 5) 소결

이상 살펴본 15세기 공간 표시 조사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15세기 공간 표시 체계

		에	에서	로	로서
정적 위치	개체 위치	○			
	사건 위치	○	○		
위치 이동	출발점	○	○		○
	출발점 방향		○	○ <sup>2)</sup>	○
	경유점	○		○	
	도착점 방향	○		○	
	도착점	○			

2) 본고에서 검토한 문헌 외의 타 문헌에서 발견된 예문에 해당되는 경우는 작은 점선 원(○)으로 표시했다.

## 2. 16세기

### 1) ‘-에’

16세기 ‘-에’는 [개체 위치], [사건 위치], [출발점], [도착점 방향], [도착점]을 나타낼 수 있다. 15세기의 자료에 많지는 않았지만 몇몇 보였던 [경유점]으로 사용된 예문은 보이지 않았다. 해당 예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 [개체 위치]

(22) 가. 후에 내 벼슬이 비록 우히 이시나 넷 사르미 다 스양히며 피히야 아래 좌에 안저니 풍속기 이러히면 엇디 시러 후티 아니히리오(後己官雖在上, 前輩皆辭避坐下坐) 〈飢小7:47a〉

나. 이 불 오나다 브르매 걸라(這的燈來了, 壁子上掛着) 〈飢老上25a〉

다. 그 免帖 우히 세 번 마조믈 먼히라 히야 쓰고(那免帖上寫着免打三下) 〈飢老上4a〉

#### - [사건 위치]

(23) 가. 그을 못초매 아비 스당애 제히며 괴일에 신주를 옮겨 대텅에 제홀디니 (季秋祭禰 忌日遷主祭於正寢) 〈飢小7:7b〉

나. 오늘 점그러 네 지브 잘 디 어더지이다(今日晚了, 你房子裏尋箇宿) 〈飢老上47a〉

다. 나는 漢兒의 마를 모르모로 길헤 머글 거시며 물들히 草料ㅣ며 하쥬들 히 전히 이 큰형님이 슈고히더니라(我漢兒言語不理會的, 路上契的、馬匹草料并下處 全是這大哥辛苦) 〈飢老下6ab〉

#### - [출발점]

(24) 가. 그 도즈기 즉재 히 弓手를 살 히 노하 쏘니 물게 느려 디니 그 도즈기 셋넉으로 물 들여 니거늘(放箭射 下馬來) 〈飢老上30a〉

‘-에’가 [출발점]으로 쓰이는 예는 많지 않고 ‘말에서 떨어지다’에 한해서만 ‘-에’를 썼다. 하지만 ‘말’뒤에 처격이 결합할 때는 항상 ‘게’로 실현되었다.

## - [도착점 방향]

(25) 가. 내 너 보내라 밖의 가마(我送到你外頭去) 〈飜老下7a〉

## - [도착점]

(26) 가. 龐公이 일죽 성 안히며 마술애 드러가디 아니호고(龐公未嘗入城府) 〈飜小9:91a〉

나. 후의 난 저믄 사르미 곳 벼슬 호야 구의에 가 간활호 아저니게 고기났  
는 바비 드외여(後生少年乍到官守, 多爲猾吏所餌) 〈飜小7:28a〉

다. 네 이 물와 비를 北京의 가 팔오 쏘 므슴 흥정ㄴ슴 사 高麗사 싸해 도  
라가 꼭노노(你這馬 和布子到北京賣了時, 却買些甚麼貨物 迴還高麗地面  
裏賣去?) 〈飜老上12b〉

## 2) ‘-에서’

16세기 ‘-에서’는 [사건 위치]와 [출발점]을 나타낼 수 있었다. 15세기에 보였던 [출발점 방향]의 쓰임은 본고에서 검토한 16세기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았다.<sup>3)</sup>

## - [사건 위치]

(27) 가. 아홉 드리면 회티 아기 빅 안히서 오식 명느니 복송와 빅 마늘 과일  
먹디 말고(九個月 懷胎孩兒 在懷腹中 喫食不食桃梨蒜菓) 〈은중5b〉

나. 賈鍊은 제 종이 지비 드나드는 손을 집 담 스이에서 주규디 아디 못호  
거니(賈之臧獲, 害門客于牆廡之間而不知) 〈飜小10:19a〉

다. 顏氏 가문 ㄴ르키는 글위릭 닐오디 거지븐 집 안해서 음식호기를 전주  
호야 오직 수리며 바비며 의복호는 레도를 일사물 썩르미니(顏氏家訓曰  
婦主中饋 唯事酒食衣服之禮耳) 〈飜小7:36a〉

## - [출발점]

(28) 가. 네 언제 王京의서 떠난다(你幾時離了王京?) 〈飜老上1a〉

나. 네 高麗사 싸해서 므슴 천을 가져온다(你高麗地面裏將甚麼貨物來) 〈飜老  
下2a〉

다. 에서 서울 가매 몇 즘겻 길히 잇는 고(這裏到京裏有幾程地) 〈飜老上10b〉

3) 17세기~18세기에도 [출발점 방향]으로 쓰이는 예문이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16세기에도 이런 용법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예문을 찾지 못했다.

## 3) ‘-로’

본고에서 검토한 16세기 자료에서 ‘-로’는 [출발점 방향]과 [도착점 방향]으로 쓰인 예문만 보이지만, 《무예제보》(1958)에 [경유점]으로 쓰인 예가 있다. 해당 예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 [출발점 방향]

- (29) 가. 쇠 적곳과 쇠 마치고 한도 같이 비 오드시 공둥으로 내려 버히며 다르며 하느니 (如雨如雲 空中而下) 〈은중 23b〉  
 나. 밋양 아츰마다 죽 먹는 드시 호고 아릅더 밋고로 솔진 고기와 보육과 젓과를 어드라 호야 (每朝令進二溢米, 而私令外取肥肉·脯·鮓, 置竹筒中) 〈籲小7:14b〉

《번역노걸대》에서는 ‘-로’가 [출발점 방향]으로 쓰인 예가 보이지 않고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번역소학》에서 각각 한 예만 발견된다. 이 시기부터 ‘-로’는 [출발점 방향]에 적게 쓰이기 시작하여 이런 쓰임이 없어지게 된 것 같다.

## - [경유점]

- (30) 칼로써 머리 우호로 혼 번 둘러 持劒對賊勢를 호고 〈무예제보50b〉

## - [도착점 방향]

- (31) 가. 일시에 부테 왕샤성의 데즈 삼만팔천 드리고 거시터니 대중을 녕솔<sup>1)</sup>샤 남녀고로 가시다가 〈은중1a〉  
 나. 우리 앞푸로 나사가 십 리만 싸해 혼 덤이 이쇼디(咱們往前行的十里來田地裏有箇店子) 〈籲老上9b-10a〉  
 다. 그 도즈기 섯녁으로 몰 들어 니거늘(那賊往西走馬去了) 〈籲老上30a〉

## 4) ‘-로써’

## - [출발점]

- (32) 가. 물읏 遼東으로 간 나그네들히 넌 덕 브리디 아녀 다 데 가 브리느니

나도 전년희 데 브리엃다니 ㄱ장 편안하더라(但是遼東去的客人們 別處不下 都在那裏安下) 〈鰾老上11b〉

나. 내 더 소니 아스미라니 앓가 ㄱ 高麗스 사호로서 오라(我是他親眷, 纔從高麗地面來) 〈鰾老下1a〉

다. 西湖는 玉泉으로서 흘러 오느니(西湖是從玉泉裏流下來) 〈鰾朴67b〉

#### - [출발점 방향]

(33) 가. 東日歸 東으로서 歸호매 〈시석의〉

나. 제 혼뉴에 모든 권속들 드리고 궁둥으로서 느려와 부텃의 일천 버니나 〈장수53b〉

다. 우리 祖師ㅣ 西山 녀그로서 와 다몬 바르 ㄱ르초믈 〈蒙山高운사28b〉

#### - [경유점]

(34) 가. 소준이 병마 니르와다 고속 싸흘 티고 횡강으로서 건너니(蘇峻舉兵反 陷姑孰 濟自橫江) 〈三綱동경忠11a〉

### 5) 소결

16세기 공간 표시 조사들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16세기 공간 표시 체계

		에	에서	로	로써
정적 위치	개체 위치	○			
	사건 위치	○	○		
위치 이동	출발점	○	○		○
	출발점 방향			○	○
	경유점			○	○
	도착점 방향	○		○	
	도착점	○			

## 3. 17세기

## 1) ‘-에’

17세기 ‘-에’의 쓰임은 16시기와 마찬가지로 [개체 위치], [사건 위치], [출발점], [도착점 방향], [도착점]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 [개체 위치]

(35) 가. 그 免帖 우희 세 번 마즈물 먼흐라 헝여 쓰고(那免帖上寫着“免打三下”)  
〈老乞上4a〉

나. 이 물개 실은 저근 모시봐도 이의서 풀고져 헝야 가노라(這馬上馳着的些  
少毛施布, 一就待賣去) 〈老乞上7b〉

## - [사건 위치]

(36) 가. 그 도적을다가 헝 외솔의 에워 ㄱ 자바 도라오니(把那賊圍在一箇山峪  
裏, 纔拿着迴來) 〈老乞上27b〉

나. 오늘이 점그러시니 네 집의 잘 디를 어디지라(今日晚了, 你房子裏尋箇宿)  
〈老乞上42b〉

다. 네 춘 디를 아쳐 아니커든 이 술윗방의 잠이 엇더흐노(你不嫌冷時, 只這  
車房裏宿如何?) 〈老乞上47a〉

## - [출발점]

(37) 살로 쏘아 물개 느러디니 그 도적이 西로 향흐여 물 들러가니라(放箭射下  
馬來) 〈老乞上27a〉

## - [도착점 방향]

(38) 가. 내 너 보내라 밖의 가마(我送到你外頭去) 〈老乞下6b〉

나. 서편에 사슬 마초라 가 더를 적은 삭 갑슬 주되(西邊對籌去 與他小脚兒  
錢) 〈朴通上12b〉

### - [도착점]

- (39) 가. 北京의 갈가 가디 못 홀가(你這月盡頭到的北京麼到不得) 〈老乞上2a〉  
 나. 義州 디나 漢人 싸히 오면 다 한말이라(過的義州, 漢兒地面來, 都是漢兒言語) 〈老乞上5a〉  
 다. 네 이 물과 비를 北京의 가 풀고 쏘 므슴 貨物을 사 高麗人 싸히 도라가 폰느노(你這馬 和布子到北京賣了時, 却買些甚麼貨物, 迴還高麗地面裏賣去?) 〈老乞上11b〉

### 2) ‘-에서’

17세기의 ‘-에서’도 16세기와 마찬가지로 [사건 위치]와 [출발점]을 나타낼 수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자료에는 없었지만 《두시언해(중간본)》(1632년)에서는 [출발점] 방향으로 쓰인 예가 보인다.

### - [사건 위치]

- (40) 가. 내 漢學당의서 글 빅호라(我在漢兒學堂裏學文書來) 〈老乞上2b〉  
 나. 스승 앞피서 글을 강호노라(師傅前撤簣背念書) 〈老乞上3a〉  
 다. 올히 옥에서 주그니라(今年就牢裏死了) 〈老乞上26a〉

### - [출발점]

- (41) 가. 네 高麗 싸히서 므슴 貨物 가져 온다(你高麗地面裏將甚麼貨物來?) 〈老乞下2a〉  
 나. 네 언제 王京의서 떠난다(你幾時離了王京) 〈老乞上1a〉  
 다. 이 城에서 썸이 三十 里 싸히 名山이 이시되(這離城三十裏來地, 有箇山名, 喚禪頂山) 〈朴通中32a〉

### - [출발점 방향]

- (42) 玳瑁 돛과 색른 더혜 놀애를 쏘 므츠니 즐거우미 7장호야 슬푸미 오니 드리 東의서 돛낫다(玳筵急管曲復終 樂極哀來月東出) 〈두시언해 중간본16:49b〉

### 3) ‘-로’

17세기의 ‘-로’는 [도착점] 방향과 [경유점]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쓰임은 현대어까지 이어진다.

- [도착점 방향]

- (43) 가. 우리 앞으로 향하여 네여 十里는 혼 싸히 혼 店이 이쇼디(咱們往前行的  
十里來地裏有箇店子) 〈老乞上9a〉  
나. 그 도적이 西로 향하여 물 들 러가니라(那賊往西走馬去了) 〈老乞上27a〉  
다. 닉일 다드라 우리 하쳐로 보내여라(到明日, 我下處送來) 〈老乞下18b〉

- [경유점]

- (44) 네 빋길로 온다 못길로 온다(你船路裏來那, 旱路裏來?) 〈朴通中12b〉

4) ‘-로써’

17세기 자료에서 ‘-로써’는 [출발점], [출발점 방향으로 쓰였는데, 16세기  
에 보였던 [경유점] 용법이 보이지 않는다.

- [출발점]

- (45) 가. 물윗 遼東으로서 가는 나그네들히 다룬 디 브리오디 아니호고 다 더기  
브리오느니 나도 저년에 더기 브리웠더니 ㄹ장 편당호더라 (但是遼東去  
的客人們 別處不下 都在那裏安下) 〈老乞上10b〉  
나. 내 더의 권당이러니 앓가 ㄹ 高麗스 싸호로서 오라 (我是他親眷, 纔從高  
麗地面來) 〈老乞下1a〉  
다. 내 만일 直房으로서 나와 집의 보아 네 업스면 또 티리라(我若出直房來,  
看家裏沒你時, 却要打) 〈朴通中25a〉

- [출발점 방향]

- (46) 가. 南方으로서 온 蜜林擒酒 혼 통과 長春酒 혼 통과 若酒 혼 통과 豆酒 혼  
통을 어더오고 (朴通上2a)  
나. 王千戶 1 뒤호로서 와 내 혼 ㄹ 刀 칼을 싸히고 (王千戶打背後來, 扯了我  
一把刀兒) 〈朴通中46b〉

5) 소결

17세기 공간 표시 조사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17세기 공간 표시 체계

		에	에서	로	로써
정적 위치	개체 위치	○			
	사건 위치	○	○		
위치 이동	출발점	○	○		○
	출발점 방향		○		○
	경유점			○	
	도착점 방향	○		○	
	도착점	○			

#### 4. 18세기

##### 1) ‘-에’

18세기 ‘-에’는 [개체 위치], [사건 위치], [도착점]으로 쓰였는데 17세기에 보이던 [출발점]과 [도착점 방향]의 예는 보이지 않는다.

##### - [개체 위치]

- (47) 가. 짜 우헌 독순 두어 줄기 나거늘(地上出筭數莖) 〈五倫孝23b〉  
 나. 농동성한에 몸에는 성흔 오시 업스되(隆冬盛寒 身無全衣) 〈五倫孝29b〉  
 다. 밭양 부들품과 측귀 삼머리로 연의 오신 두어 주니(恒以蒲穰及敗麻頭與延貯衣) 〈五倫孝29a〉

##### - [사건 위치]

- (48) 가. 아버이 죽은 후의 남으로 초나라헌 놀 식 〈五倫孝04a〉  
 나. 어미 죽으매 밭양 무덤 것헌 너막호고(母終 常寢伏冢廬) 〈五倫孝9b〉  
 다. 의도라 호는 짜헌 니르러 만니 브라보니 산둥의 혼 늙은 사름이 남글 버히거늘(遙見山中一老公伐木) 〈五倫孝37a〉

##### - [도착점]

- (49) 가. 어미로 더브러 고향에 도라와(與母歸鄉里) 〈五倫孝09b〉

- 나. 연이 물에 가 어름을 두드리며 우니(延尋汾叩凌而哭) 〈五倫孝29b〉  
 다. 종이 대 수풀의 드리가 슬피 우니(宗入竹林哀泣) 〈五倫孝23b〉

## 2) ‘-에서’

### - [사전 위치]

- (50) 가. 뵈오슬 넙고 칼을 가지고 길<sub>ㄱ</sub>의서 울거늘 공직 술위에 나리샤 그 연고  
 를 브르 신대(被褐擁劒 哭於路左 孔子下車而問其故) 〈五倫孝05b〉  
 나. 오월 오일에 강<sub>ㄱ</sub>의서 파스신들신령이라을 마즐 식 마즘 강물이 탕일흐  
 여 싸져 죽어 그 죽음을 었디 못흐니(漢安二年五月五日 於縣江 汧濤迎婆  
 娑神) 〈五倫孝13a〉  
 다. 아비를 쫄와 밭<sub>ㅅ</sub>의서 곡식을 뷔다가(隨父田間穫粟) 〈五倫孝30b〉

### - [출발점]

- (51) 가. 내 산에서 느리와 〈三譯 2:18a〉  
 나. 네 언제 王京에서 떠난다(你幾時離了王京) 〈老新1:1a〉

### - [출발점 방향]

- (52) 네 南邊에서 와시니 速不惕이 잇느냐 〈오전 7:19a〉

## 3) ‘-로’

18세기의 ‘-로’는 17세기와 마찬가지로 [경유점]과 [도착점 방향] 두 용법으로 쓰였다.

### - [경유점]

- (53) 가. 이에 진평이 밤에 겨집 이천여 인을 동문으로 내여 보내여 싸흠흐려  
 는 테 흐니 초나라 군식 수면으로 티거늘(陳平夜出女子蔡陽東門二千餘人  
 楚因四面擊之) 〈五倫忠09b〉  
 나. 왕이 수십 괴를 거느리고 서문으로 나 성고로 드라나니 항위 괴신을 불  
에 술와 죽이니라(王得與數十騎 從西門出 走成臯 羽燒殺信) 〈五倫忠10a〉  
 다. 강<sub>ㄱ</sub>으로 든지며 브르지져올어 밤낮으로 소리를 굿치디 아니흐더니(乃沿  
 江號哭 晝夜不絕聲) 〈五倫孝13b〉

## - [도착점 방향]

- (54) 가. 말이 막째 공둥으로 올라가더라(語訖 騰空而去) 〈五倫孝19b〉  
 나. 누른 새 수십이 그 집으로 느라 드리오고(復有黃雀數十飛入其幕) 〈五倫孝25b〉  
 다. 처죽들이 잇글고 길로 나가 인하여 그 녀막을 불지르니(妻黨牽引登途 仍焚其廬) 〈五倫孝62b〉

## 4) ‘-로써’

17세기에 보였던 [출발점]으로 쓰인 예는 보이지 않고 [출발점 방향으로 쓰인 예만 보인다.

## - [출발점 방향]

- (55) 복센복두성이라에 마리 조아 몸으로 덕신호를 원하니 이윅하여 공둥으로서 웨어 날오디(俄聞空中有聲曰) 〈五倫孝35b〉

## 5) 소결

18세기 공간 표시 조사의 쓰임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18세기 공간 표시 체계

		에	에서	로	로써
정적 위치	개체 위치	○			
	사건 위치	○	○		
위치 이동	출발점		○		
	출발점 방향		○		○
	경유점			○	
	도착점 방향			○	
	도착점	○			

## 5. ‘-에’와 ‘-에서’의 [사건 위치] 용법

서론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현대어에서는 ‘-에’가 [개체 위치를, ‘-에서’가 [사건 위치를 나타낸다. 하지만 15세기~18세기에 [사건 위치를 표시함에 있어 ‘-에’와 ‘-에서’가 모두 쓰였다. 본고에서는 아래 몇몇 문헌에 한해 [사건 위치를 나타낼 때 ‘-에’와 ‘-에서’가 각각 몇 회 쓰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표로 보이면 <표 6>과 같다.

## (56) 검토 문헌

15세기: 월인석보 7권, 월인석보 8권

16세기: 속삼강행실도, 속삼강행실도(중간본), 번역노걸대

17세기: 노걸대언해

18세기: 오류행실도

<표 6>을 보면 15세기에는 ‘-에’가 주로 사건 위치를 나타내던 것이 16~17세기에 ‘-에서’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여 18세기에는 사건 위치를 나타냄에 있어 ‘-에서’를 더 많이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규호(2006)에서는

<표 6> [사건위치]를 나타내는 ‘-에’와 ‘-에서’의 횟수

문헌	‘-에’	‘-에서’
월인석보 7권	9	1
월인석보 8권	23	4
속삼강행실도	9	3
속삼강행실도(중간본)	7	5
번역노걸대	13	27
노걸대언해	13	27
오류행실도	28	42

노걸대류 문헌을 대상으로 행동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서’가 붙은 경우가 많다고 기술한 바 있다. 행동성은 본고의 ‘사건 위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본고에서의 관찰과도 맞물린다.

### III. 결론

이상 시기별로 15세기~18세기 공간 표시 체계를 살펴보았는데, 15세기에는 하나의 공간 개념을 두 개 이상의 조사로 표현하는 것이 5개, 16세기에는 4개, 17세기에는 3개, 18세기에는 2개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에 따른 공간개념 분화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조사별로 정리한 것이다.

#### ‘-에’

		15c	16c	17c	18c	현대어
정적 위치	개체 위치	○	○	○	○	○
	사건 위치	○	○	○	○	
위치 이동	출발점	○	○	○		
	출발점 방향					
	경유점	○				
	도착점 방향	○	○	○		
	도착점	○	○	○	○	○

#### ‘-에서’

		15c	16c	17c	18c	현대어
정적 위치	개체 위치					
	사건 위치	○	○	○	○	○
위치	출발점	○	○	○	○	○

		15c	16c	17c	18c	현대어
이동	출발점 방향	○		○	○	
	경유점					
	도착점 방향					
	도착점					

## ‘-로’

		15c	16c	17c	18c	현대어
정적 위치	개체 위치					
	사건 위치					
위치 이동	출발점					
	출발점 방향	○	○			
	경유점	○	○	○	○	○
	도착점 방향	○	○	○	○	○
	도착점					

## ‘-로써’

		15c	16c	17c	18c	현대어
정적 위치	개체 위치					
	사건 위치					
위치 이동	출발점	○	○	○		
	출발점 방향	○	○	○	○	
	경유점		○			
	도착점 방향					
	도착점					

이상 15세기~18세기 자료에서 공간 표시 조사의 쓰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당 시기의 더 많은 문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거니와 19세기~20세기의

자료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완전한 공간 표시 조사의 변모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하나의 공간 개념이 두 개 이상의 조사에 의해 표시될 경우 그 차이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으나 이런 부족한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박진호(2012), 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요소와 문법요소의 의미 기술, 《국어학》 63, 국어학회.
- 박진호(201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국어 문법사 특강” 강의 자료.
- 박진호(2015), 언어에서의 전염 현상, 《언어학》 40-4, 한국언어학회.
- 이규호(2006), 노걸대류 출발점 표시의 조사들, 《중국어연구》 36, 중국학연구회.
-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I)》, 태학사.
- 上保敏(2007), 15세기 한국어의 처격체계, 《구결연구》 18, 구결학회.